

文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인”…金 “대결의 역사 종지부 찍자”



11년만에 마주앉은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北 통해 백두산 가고파”…“초청하면 언제든 靑 갈 것”

문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시종일관 친밀감·배려 넘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첫 만남임에도 서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등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판문점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이런 내용의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처음 만나 악수를 하면서 “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고 답하면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촬영 후 또 의장대와 행렬하던 중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다.

환담장에 이동해서도 비슷한 화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에 안 가봤다. 중국을 통해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다”며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6·15, 10·4 합의서에 담

겼는데,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의 용단으로 10년간 끊어진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점”이라면서도 “우리로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분단선이 높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결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며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날씨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며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며,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고 답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거울삼아 잘할 것”이라며 “제가 시작한 지 1년 차다. 제 임기 내내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 부처에서 ‘만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북의 통일 속도로 삼자”고 했고, 이에 배석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화답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후에도 기념식수 후 ‘도보다리’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취재진과 수행원 없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박지경기자 jkpark@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리설주 여사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숙·리설주 남북 정상 부인 첫 만남

리, 최근 국내의 행사서 외교역할 수행…北 정상국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환담한데 이어 환영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는 남북 정상 부인 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모두 그런 만남 없이 북한의 여성계 대표 등을 만났을 뿐이다.

리설주 여사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각종 공개 일정을 수행한 데 이어, 집권 후 첫 외국 방문이었던 지난달 25일~28일 방중에도 동행해 연화·오찬 등의 일정에 참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Peng Liyuan(彭麗媛)의 상대 역할을 했다.

리설주는 3월 5일 김 위원장과 우리 북특명사절단의 만찬에 동석했고, 이달 1일 동명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도 김 위원장과 함께 관람하는 등 최근의 주요 남북교류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김정은 부부가 함께 외교 석상에 나서거나, 외교 과정에서 리설주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외교를 수행하는 ‘정상국가’임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1954년생인 김 여사는 리설주 여사보다 35살이 많다. 이런 나이 차이와는 무관하게 김 여사가 유쾌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남북 정상 부부가 동반한 이번 만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임동욱기자 tuim@

“새벽 기상 습관 되셨겠다…우리 교통 불비” 김정은 솔직화법 화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화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1층 환담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환담에서 북한의 열악한 교통시설부터 탈북민, 연평도 등 예민한 주제들을 거침 없이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대결의 상징인 장소(판문점)에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며 “오면서 보니 실랑미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

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의 오늘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판문점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우리 측의 대응이 반복되던 과거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에게 “우리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 많이 설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초 방북한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도 “그동안 우

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매특허’와도 같아진 ‘차부 솔직히 드러내기’는 오늘 환담에서 또다시 등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면서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사회의 문제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체제의 ‘금기’를 깨는 데 거침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남측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까지 거론하는 파격을 보인 것이다.

그는 작년 조선중앙TV로 전국에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뻘이었고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임동욱기자 tuim@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3억 5천 ◆
(용 3억5천 가능)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산정동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 매가 : 22억 ◆
(용 1억 보 1억4천)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평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7)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1천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평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1) 서구 매월동 (정예식당)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평암동 주안아파트 (24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⑥ 북구 송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8천5백	⑬ 광안구 월산동 토지 1999평, 건물 240평 감평가 60억 → 최저가 48억
② 서구 내방동 배동중아파트(24평)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⑦ 평안구 월계동 (2층주택) 토지 68평 건물 73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⑭ 광안구 월산동 (공정) 토지 2200평, 건물 1250평 감평가 60억 → 최저가 45억
③ 서구 화정동 대우아파트 (25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⑮ 서구 평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9억 → 최저가 49억
④ 평안구 선동 신부영 (25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문암동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⑯ 광안구 비포동 (임대) 13,999평 감평가 199억 → 최저가 145억
⑤ 동구 문암동 관아아파트 (25평)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4천		⑰ 서구 평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9억 → 최저가 49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영연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